

교육서비스 국제표준화 동향



육근성

문화서비스표준화 공업연구원
02-609-7280
yoo-sun.ing@kks.go.kr

1. 개요

과학·기술·경제 전반에 걸친 국제표준 제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진화하고 국제교역 증진을 추구하는 ISO가 1990년대 말부터 서비스분야로 국제표준화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서비스이다.

2. 국제 동향

ISO에서 교육서비스는 TC 232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TC의 공식 명칭은 '비정규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서비스' (Learning services for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이다.

작업범위는 비정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요건의 표준화, 정규 교육시스템 관련 투명성 요건의 표준화, 윤리강령 요건의 표준화로 제한하고, 16세 이상의 비정규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의장국과 간사국은 독일에서 맡고 있으며 정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18개국이며, 준회원국으로는 덴마크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07. 3월에 제1차 총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제2차 총회는 '08.4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총회는 '09.3월에 일본 농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SO/TC 232에는 현재 WG(working group)이 1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교육서비스 제공자' (Learning service providers)이다. WG 1 역시 컨비너와 간사 모두 독일인으로, 현재 ISO/CD 13146 1종의 작업안이 진행 중이다.

작업안의 명칭은 '비정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요건 (Learning services for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Basic requirements for service providers)이며, 표준의 성격은 포괄적(generic)으로 향후 작업할 분야별(sector-specific) 교육서비스 표준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dancing school, language training, professional training, 스쿠버다이빙 훈련 등에 관한 관련

서비스 표준이 있다.

ISO의 표준화 범위에서 문화와 IT분야는 제외되었다. 문화적, 윤리적 관점은 제외하고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 제공자의 차이가 없다며 공교육(formal education)도 포함시키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공교육은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표준화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ISO/TC 232에서는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자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제1차 회의부터 주도권 선점을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세계 제1위의 교육서비스 수출국이며, 교육서비스가 자국 서비스 수출에서 5위를 차지(미국 상부성 자료)하고 있는 미국은 IACE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의 표준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한 53종의 표준을 국가표준(ANSI)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고자 제1차 회의에 8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총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제1차 회의에는 국제표준화 초보자가 참석하였으나 그 후 자국내 비러커비티를 구성하여 제2차 회의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제3차 총회를 동경에 유치하고, '08년 7월에는 ISO/TC 232 관련 국제전문가를 초청하여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일본 비러커비티 위원장이 방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 결론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분야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특히 산업교육 등 다양

한 교육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09년 말 또는 2010년 초로 제정이 예상되는 ISO 13146이 인종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는 한편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 2009.1